

흙에서 흙으로~



2021.07.01. ~ 2021.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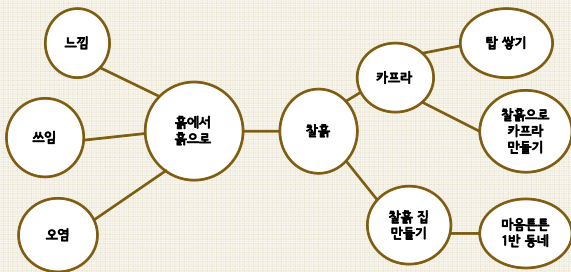
향기로운 흙냄새와 부드러운 흙

'흙에서 흙으로' 주제를 시작한 된 계기

모래 놀이터에서의 놀이는 유아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놀잇감입니다.

모래와 흙에 물을 넣어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파헤쳐 보기도 하는 등의 신나는 흙 주제로 놀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7.01 ~ 08.31)



'흙' 하면 떠오르는 것

놀이터나 텃밭의 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흙과 관련된 다양한 동식물 놀이도구, 관련된 장소 등을 떠올리며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았어요. 각자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흙을 찾아봐요.

'흙을 발로 밟아보고 싶어요~'

유치원 마당, 주차장, 하늘정원, 놀이터 등 여러 곳에 있는 흙을 찾아보고 탐색해보며
손으로도 만져보니 부드러운 느낌, 단단한 느낌, 거친 질감 등을 느끼며 발로 밟아보고 신나는 흙놀이를 합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니까
부드러워~



주차장 흙을 딱딱해..



어? 여기에는 개미도 보인다.



화단에 있는 흙은
돌멩이도 많다~

난 까



놀이터에 있는 흙이랑
느낌이 다르네?

하늘정원에 있는 텃밭의
흙은 촉촉해~



우와~ 발로 흙을 밟으니깐
느낌이 너무 좋다~

우리 주변의 흙을 소개해요.

'우리 집에도 흙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보이는 흙이 아닌 다른 장소의 흙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각자 여러 장소에서 흙을 가지고 오며 퍼온 흙을 소개도 하고 관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마다 흙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힐타이루미
화단에서 흙을
퍼왔어~



뒷산에서 흙을
퍼왔는데 비가 온 뒤
라 흙이 축축해~



난 토마토 화분
에서 가지고 왔지!

나는 공원에서
흙을 퍼왔어~



내 흙은
어린이 공원에서
많이 퍼왔어~



난 배란다 화분에서
흙을 가지고
왔어~



흙은 왜 다 다를까요?

'온우가 가지고 온 흙에서 냄새가 나는데?'

친구들이 가지고 온 흙을 관찰하다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흙의 색깔도, 질감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흙에서 냄새가 난다"

마음1반 친구들은 다른 흙들의 냄새를 맡아보며
왜 이 흙에서는 냄새가 흙의 냄새, 질감, 색깔 등을
관찰해보았어요.

으!! 흙에서
똥냄새가 나요...!!!

이 흙 냄새가 나지 않아.

이렇게 체로 치면
고운 가루가 나와~

여기에는 하얀 돌이 들어있어.

흙이 폭신폭신했어~

이 흙은 냄새가 안나!

흙으로 하는 재미있는 놀이

'흙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요?'

놀이터 흙으로 게임하고 고운 흙을 엄색하여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글자를 써보기도 하며 흙과 모래를 섞어서 놀이도 해보았어요.

장난감이 아닌 흙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잇감 입니다.



으쌔~
이만큼 흙을 가져가야지!



흙 물감으로 색칠할래~



물을 섞어서 워터파크를 만들자~



손바닥 도장을 찍자~



알록달록 색깔 모래로 칠해요~



진흙 공을 만들고 있어요~

찰흙을 탐색해요.

'채빈이가 가지고 온 흙이 찰흙처럼 변했어요!'

산에서 퍼온 흙을 물과 섞어 놀이한 뒤 시간이 지나서 만져보니 찰흙처럼 말랑말랑해졌어요.

진짜 찰흙을 손으로 발로 만져보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즐겁게 놀이합니다.



발로 찰흙을 밟으니
재미있어~



우와 이걸로 찍으니까
거미줄 모양 같아졌어.



물에 섞은 흙이 잘 뭉쳐지네?



와다다다다~~



이거봐요~ 사람 얼굴을
만들었어요~



내 눈썹에 찰흙 묻었다!!^^

찰흙 마른 것을 절구로
뺏으면 가루가 되요~



찰흙으로 카프라를 만들어요

'카프라가 부족해요. 찰흙으로 더 만들어요.'

카프라로 놀이를 하다가 부족하여 찰흙으로 만들어보았어요.

찰흙 카프라는 마른 뒤 쉽게 망가져서 안 망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철사와 나뭇가지를 꺾서 만들어보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왜 찰흙은 쉽게 부서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답니다.

흙으로 만든 카프라보다 나무로 만든 카프라는 위에서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기에

흙보다는 나무가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프라로
높은 탑을 만들고 있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 찰흙으로 카프라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찰흙 안에 철사,
나무막대를 넣어서 만들어야지.



뜨악! 찰흙으로 만든
카프라가 부서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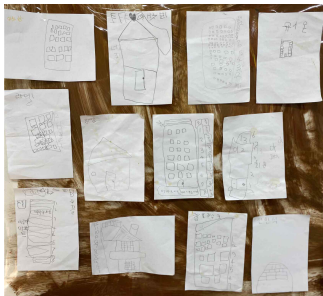


우리가 만든 멋진 찰흙 집

'흙으로 만든 집도 있어~'

흙으로 만든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찰흙으로 집을 만들어 보았어요.

집을 만들기 전 필요한 설계도를 관찰해보고 지지대의 역할도 알아본 뒤
찰흙과 와이어 철사를 이용하여 멋진 나만의 찰흙 집을 완성해보았습니다.



▲마음튼튼1반이 만든 설계도



설계도와는 다른 집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음튼튼1반 친구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집을
설계해보는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흙에서 흙으로'를 마무리를 하며...

교실 바닥에서 구성하던 작은 동네를 라이트 테이블로 옮기며 우리가 만든 집과 그 주변을 꾸며주었습니다.

작은 동네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아쉬워하였지만 작은 사람으로 변한 나의 사진으로 놀이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보이는 자연재료인 흙으로 여러가지의 놀이를 통하여

마음튼튼1반 친구들이 앞으로도 상상력과 미적 감수성이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마음1반 친구들이 이 속에서 놀이하는 것을 정말 재미있어했어요~